

정답 및 해설

• 1회 언어와 매체 35~45 •

정답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해설

1. [출제의도] 사동문의 유형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사가 침대에 환자를 눕게 하였다.’에서 ‘침대에’는 피사동주가 아니라 행위의 장소이므로 ㉠의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동문 ‘아기가 잔다’를 ‘어머니’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자다’는 자동사이고, 문장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주동문 ‘길이 넓다’를 ‘인부’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넓다’는 형용사이고, 문장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주동문 ‘그 회사가 사실을 알다.’를 ‘나’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문장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④ 주동문 ‘아이가 우유를 먹다.’를 ‘어머니’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문장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사동문의 특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나는 타조를 보았다.’는 피동문인 ‘타조가 나에게 보였다’와 비교하면 능동문이다.
- ㉣ : ‘어머니께서 아기가 자게 했다.’와 같이 피사동주 ‘아기’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 ‘아기가 자게’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사동문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옷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입혔다.’로 주동문이 되지 않는다.

㉡ : 목적어 ‘동생들’은 ‘나는 동생에게 과일을 먹었다.’와 같이 부사어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과일을’은 부사어로 나타날 수 없다.

3.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고, ‘ㄱ’이 비음화 되어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났다.
- ㉡ : ‘살살이’는 첫 번째 ‘ㅌ’이 ‘ㄷ’으로 평파열음화 되고, 두 번째 ‘ㅌ’이 된소리되기로 ‘ㅍ’으로 받음되며, 두 번째 ‘ㅌ’이 구개음화 되어 음운 변동이 3번 일어났다.
- ㉣ : ‘훤옌소’는 ‘ㅍ’이 평파열음화 되고, ‘ㅌ’이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음운변동이 2번 일어났다.
- ㉤ : ‘잇히다’는 ‘ㅈ’과 ‘ㅎ’이 축약되어 음운 변동이 1번 일어났다.

4. [출제의도] 어미의 종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은 ‘-ㅅ- + -았- + -다면’으로 두 개의 어미가 분석되며, ㉡은 ‘-주- + -겠- + -다 + 고’로 두 개의 어미가 분석된다. ‘고’는 간접 인용격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어미 ‘-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어말어미에 속한다.
- ② ㉠의 어미 ‘-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이고, ㉡의 어미 ‘-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로 기능이 다르다.
- ④ ㉢은 ‘-았-’과 ‘-겠-’의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분석되고, ㉣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은 ‘-은’, ㉡은 ‘-도록’ 한 개의 어미가 분석되지만, ㉣은 ‘-았-’, ‘-다’ 두 개의 어미가 분석된다.

5. [출제의도] 모음조화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어간 ‘-잘ㅎ-’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이고, 어간 ‘어울-’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으로, 한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를 보여 준다. 또한 어미와의 결합에서 양성 모음 뒤에서 ‘ㄴ’, 음성 모음 뒤에서 ‘워’로 나타나 어간과 모음의 모음 조화도 확인된다. 따라서 둘 다 ㉠과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모음조화만 드러난다.
- ③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모음조화만 드러난다.
- ④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모음조화만 드러난다.

⑤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모음조화는 드러나지만, 한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연구원이 미국에 있고 그곳은 늦은 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면 인터뷰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채팅 창을 통해 송◇◇ 학생의 질문 메시지와 연구원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링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인터뷰에서 영상과 음성언어 외에도 문자나 하이퍼링크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형적’은 선처럼 일직선으로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화면에서 동아리 학생 6명과 연구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이 함께 실시간으로 인터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학생 1, 2, 3과 송◇◇ 학생이 연구원의 발언에 대해 바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행 중에 궁금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질문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학생 1’이 첫 번째 발언에서 화면과 소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연구원이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비대면 온라인 인터뷰는 연결 상태에 따라 영상과 음성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연결 방법에 따라 회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 연구원은 메타버스의 유형에 대해 답변하며 파일을 화면에 공유하고 화면의 글자 ‘라이프 로깅’에 동그라미를 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직접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달하려는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대면 상태와 완전히 다른 인터뷰 방식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자료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a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플랫폼에서 개인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개인과 기업간의 이익 갈등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 b의 <1>에서 증강현실 게임이 몰두하여 일어나는 안전 사고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근거한 공감적 수용을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나) b의 <2>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를 통해 일반적인 디지털 범죄와 달리 다양한 가치를 침해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 내용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의 수용은 적절하다.

③ (나) b의 <2>에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일반적인 디지털 범죄와 달리 다양한 가치를 침해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 a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수용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 a는 작성자가 칼럼을 최초 작성한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을 나란히 적고 있지만 수용자들은 이를 통해 최초 글에서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수정 전의 내용과 수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 a는 본문의 앞에 우리 사회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 메타버스가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메타버스가 소통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글의 구성과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 b는 ‘증강 현실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의 본문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문자 언어와 사진이라는 서로 다른 양식의 정보를 결합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b에서 두 소제목은 글자의 굵기와 형태가 본문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독자의 집중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하다.

⑤ (나)-a는 ‘메타버스에서 찾자!’라는 청유형을 통해, (나)-b는 ‘메타버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관점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메타버스에 대해 (나) a는 메타버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관점을, (나) b는 메타버스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의 각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수용 태도는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 a에서 작성자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 플랫폼을 제안하며 가칭 ‘은빛 세상’의 구상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한 대안의 신뢰정보는 실효성 및 타당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수용해야 한다.
- ② (나) b는 ‘열아홉 살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블로그 명칭과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메타버스의 이용자인 우리’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나) b는 개인 블로그로 메타버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관련 정보를 전달한 매체이다.
- ③ (나)-a가 메타버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반해, (나)-b는 메타버스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제시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b는 a와 달리 메타버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두 주장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④ (나)-b는 개인 블로그로 사적인 매체이지만 (나)-a는 인터넷 신문으로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매체이다.

10.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구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 연구원은 메타버스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한 화면에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네 유형의 명칭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3에서는 각 유형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에 대한 출처를 밝힘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 a는 메타버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고, (나) b는 메타버스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제시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각각 #5와 #6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각 화면 내용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연구원은 메타버스가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링크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나) b에서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관련 사건 기사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링크된 기사가 모두 신뢰할만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에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나와 있으나, 어원에 대한 정

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나)에도 메타버스의 어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단어의 품사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㉓는 문맥적으로 “은빛 세상’ 이외의’ 플랫폼을 뜻한다. “은빛 학교’와 같은’이라고 하였으므로, ‘은빛 학교’는 ‘다른 플랫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다른’은 ‘당장 문제가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를 갖는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뒤의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 ② ㉒ ‘다른’은 ‘비교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이다. 형용사 ‘다르다’는 ‘~와/과 다르다’의 ‘~와/과’처럼 비교 대상이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㉒에서는 ‘현실 세계와’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에 해당한다.
- ④ ㉔는 의미적으로 ‘다르다’의 의미가 없고, ‘~와/과’와 같은 문장 성분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형용사로 볼 수 없다.
- ⑤ ㉑, ㉒, ㉔는 관형사로 문장에서 수식언의 기능을 하고, ㉓의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문장에서 수식언의 기능을 한다.